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삼성 등 재계 전폭지원

산업부,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위원장에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유치전략 수립, 169개국 유치전  
LG 등 5대 주요그룹, 부위원장 맡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와 기업, 부산시의 총력 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대기업 한 곳이 유치 지원에 나선다는 이전과 달리 이번엔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이 협업체 전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됐고, 발기인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이밖에 각계각층의 사회 주요 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됐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장으로 선임된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사진은 지난해 7월 '2020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유치위원회는 박람회 유치전략 수립과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재계를 대표해 무역협회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유치위원회는 현대차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협업체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5대 그룹이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정이현 회장, SK 최대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맡는다. 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요갑 회장 등 4개 경제단체가 힘을 보탠다. 이밖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GS 허태수 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거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에선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활동을 한 바 있다. 설립총회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10대그룹, 무역협회, 대한상의, 한전, 코트라 등이 재단법인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해외네트워킹과 정부의 외교역량을 심분 활용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5대 그룹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국제행사 유치모델이 마련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한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유치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7월중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8월중 관계부처·부산시 합동의 유치위원회 사무처를 발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교차로 41곳 개선... 1222억 경제적 이익

(연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줄이기 일한  
차량속도 증가, 지체시간 감소 등 효과

전국 주요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벌인 결과, 차량 속도가 증가하고 지체시간은 감소하는 등 연간 122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4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동으로 노인과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해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생활권 주요 교차로 중 특정시간대에 정체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41개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했다.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 차량 속도는 12.1%(21.5km/h→24.1km/h) 향상되고, 지체시간은 19.0%(99.7초/km→80.8초/km) 감소했다.

이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64억원의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행시간비용과 환경비용 절감액을 포함하면 연간

약 122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안전성도 높아졌다. 공단은 앞서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차로 신호운영체계를 분석해 신호주기와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개선하고, 시설물 개선 및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 등의 종합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이 개발한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성이 약 17.4%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 "변이 바이러스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덕원 기재부 차관 "국내시장 영향"

이덕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등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한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충격과 민생의 어려움 완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과 리스크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이덕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우리 실물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고 견고한 대외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힘입어 변동 폭은 제한을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동향 관련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방사청, '신무기 찾기' 사업에 예산 1204억 투입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공모  
내달부터 서면평가 거쳐 9월 선정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과거에 없던 신기술을 반영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는 사업에 1204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으려는 노력과 시도는 좋지만, '내실 없이 탐색건수 위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사청은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모되는 신규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을 신규과제로 연구개발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신설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107%가 증액된 1204억원이다.

이번 공모는 ▲양자물리 ▲합성생물학 ▲극초음속 ▲무인 자율 ▲미래 통신/사이버 ▲고에너지 ▲인공지능 ▲

우주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개별과제를 대상으로 자유공모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을 대상으로는 사업관리자(PM)가 프로그램, 세부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직접 기획하는 피엠(PM) 기획 지정공모도 실시된다.

각 공모는 8월부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된다. 사업관리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돼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별과제는 12월 해당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은 2~5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국가를 꼽으려면 단연,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생 중 엄선된 인원을 '탈피오트'로 선발해, 융합과정의 석사학위까지 교육을 시킨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사뭇 다른 교육과정이다. 학업을 마치고 바로 장교로 임관한 탈피오트는 자기가 배치된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 또는 무기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다.

때문에 야전의 '필요도'와 '상황'이 잘

녹아든 우수한 장비와 무기들이 이스라엘 방산기업에서 발매하게 생산된다. 체온과 적외선 등으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식별해내는 구조용 대혈 스크린은 군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소방구조 산업물자로는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도 탈피오트 요원이 개발한 제품이다.

국과연에도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 과기사관)'이 배치되지만, 대부분 학사학위 소지자인 과기사관에 의한 연구개발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비와 무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과기사관은 반납의무가 없는 국가장학금을 받아, 타 군장학생들과 달리 3년의 의무복무 외에는 추가복무가 없다. 장교과정임에도 양성교육이 8주로 매우 짧다. 복무기간에 양성교육이 포함되지 않는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16주의 양성교육 후 별도의 병과 교육을 받는다.

때문에 양성교육만 거치면 야전복무 없이 즉각 국과연으로 배치되는 과기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는 공모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노동자 끼임 사망... 한일시멘트 '작업중지'

고용부, 법 위반 중대하면 엄중처벌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진 충남 공주의 한일시멘트가 정부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한일시멘트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시멘트 포대 적재기 아래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했다.

고용부는 이를 기계수리, 정비, 청소 등 소위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보고 있다.

비정형 작업 중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비정형 작업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기계 가동을 멈추는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추락과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 약 1800명을 투입한다.

/세종=원승일 기자